

세기말, 우리말이 놓인 스산한 풍경

남영신 | 국어문화운동본부 회장

또 한글날이 다가온다. 어김없이 '국어 사랑, 나라 사랑'의 기조 위에서 그렇고 그런 이야기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이다.

국내 최대 일간지라고 자랑하는 한 신문의 기사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다. "그러나 20년 넘게 일관된 스토리를 가져가면서도 인기를 지켜내고 있는 '우리가면'은 그것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도 일면 유효한 가치임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현학적인 듯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멋진 글 같기도 한 이 문장은 올바르게 적힌 문장일까?

한 방송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밑으로 보이는 곳을 좀더 내려가려는 평택 인터체인지 부근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평택인터체인지 부근에서는 다시 차량들이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명한 텔레비전의 9시 뉴스 방송 내용 가운데 한 토막이다. 이 말은 제대로 된 국어일까?

제법 고급스럽게 잘 만든 책을 사서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났다. "당시 사람들은 지구에 대한 지적인 표상이 왜 지구 자체와 구별되는지 불안해하며 그 이유를 알고자 무척 애썼다. 오늘날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현대는 지구를 떠나서 그 자체로 완결된, 통일된 함목적성을 지닌 가상의 형상으로 지구를 그려내고 있다." 알 듯 모를 듯, 무슨 비결인 양 이어지는 이 문장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고 그만 머리가 아플 지경이 돼 책을 덮는다. 내가 무식한가 글을 쓴 사람이 너무 유식한가?

우리가 훈민정음을 사용한 지 550년이 넘었다. 그 동안 우리는 한글이 어떻게 한자가 어떻게 하는 논쟁만 되풀이하는 사이에 국어는 이미 대학을 나온 지식인들조차도 제대로 쓸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까다로운 언어가 되고 말았다.

이제까지는 겨우겨우 뜻이 통하는 정도로 언어 생활을 영위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상대가 하는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나름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지식 기반의 세기, 문화의 세기, 정보의 세기가 될 21세기 문턱에 서 있는 우리 국어의 모습이다.

백화점이나 서비스 가게에 가면 어김없이 "좋은 하루 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듣게 되고 텔레비전 마감 뉴스에서는 빠짐없이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는 인사를 받는다. 일간 신문에서는 "엔高, 엔GO"라는 제목이 큼직하게 눈에 띈다. 지금 우리는 자신의 언어를 망가뜨리면서 그것으로 의사 소통을 꾀하고 있다. 망가진 언어가 어느 정도로 언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우리 것이 망가지면 내버리고 다른 언어를 빌려쓰면 된다? 그래서 영어를 모국어로?

남들이 문화를 말하고, 지식을 말하고, 정보를 말하니까 이를 쟁싸게 이용해 지식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 이골이 난 학자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국어를 지금처럼 사용하면서도 그 망가진 언어로 학문을 하고, 과학을 하고, 제도를 만들고, 문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지. 이런 언어를 가지고 지식의 대중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호들갑을 떨지 말고 차분하게 문화의 기틀, 지식의 바탕, 정보의 매개체인 국어를 어떻게 다듬고 발전시켜야 할지 고민하게 되기를 빌어 마지 않는다.

통권 제264호 | 1999년 9월 5일 발행

발행인 김낙준

편집이사 임홍조

편집자문 김정란 이정우 임지현

편집장 김지원

기자 오원진 박천홍

이현주 김연수

사진 한준호

편집디자인 장병규디자인 · 서정희

출판저널 · 박은정

업무부장 윤동호

업무·광고 이희천 김동필 천창환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발행처 (재)한국출판금고

732-1434 · 5

인쇄처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이일수

출판저널 110 - 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 - 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 - 1431 · 2 | 편집

732 - 1433 | 업무 · 정기구독문의

FAX 722 - 1174

E-mail book732@chollan.net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택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붙일거나

국민은행 계좌번호 023 - 01 - 0219 - 936

(예금주:출판저널)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 - 6

716 - 5616~9, 716 - 5621~3